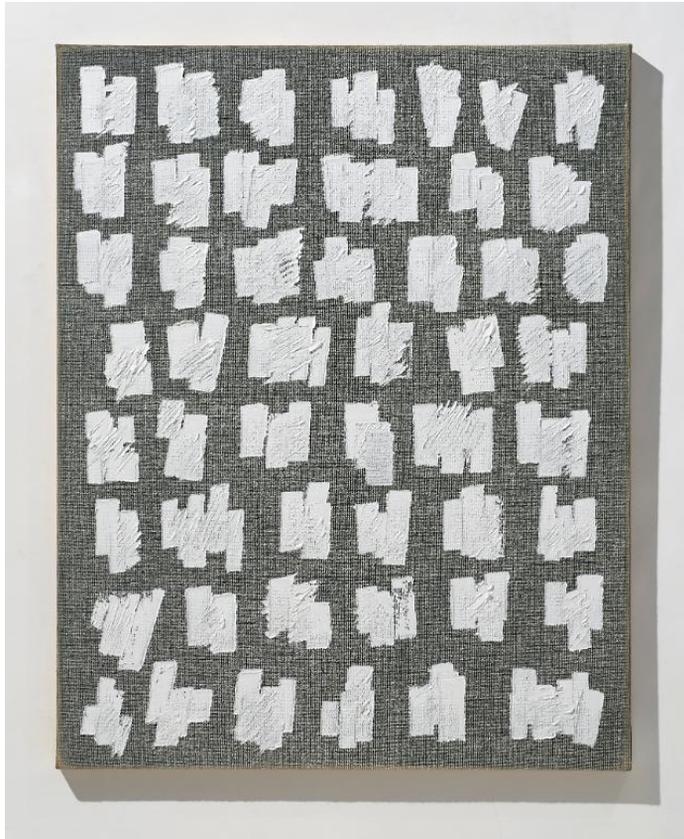


국제갤러리 부산, 하종현 개인전 개최...'접합' 신작 선보여

May 20, 2019 | 전성민 기자

page 1 of 4

5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
'접합(Conjunction)'의 근작 및 신작 10여 점



[하종현(b.1935) 'Conjunction 18-52' 2018 Oil on hemp cloth 162 x 130 cm 사진=국제갤러리 제공]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하종현이 4년 만의 국내 개인전을 통해 연작 '접합(Conjunction)'의 신작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20일 "오는 5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하종현의 개인전 'Ha Chong-Hyun'을 부산 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최근 LA,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개인전 등 국제 활동에 주력해온 하종현은 국내에서 4년 만이자 부산에서의 첫 개인전을 통해 수십여 년 동안 천착해온 대표 연작 '접합(Conjunction)'의 근작 및 신작 1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제갤러리 서울점 개인전에서 '그을림(smoke)' 기법을 비롯해 기왓장, 벽돌, 흙, 억새풀 등 자연의 색을 연상케 하는 '접합' 신작을 처음 소개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작가가 근래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 다홍색의 대형 크기 '접합' 연작을 공개한다.

하중현은 울이 굵은 마포(麻布)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밀어 넣는 배압법(背押法)을 통해 독창적인 작업 방식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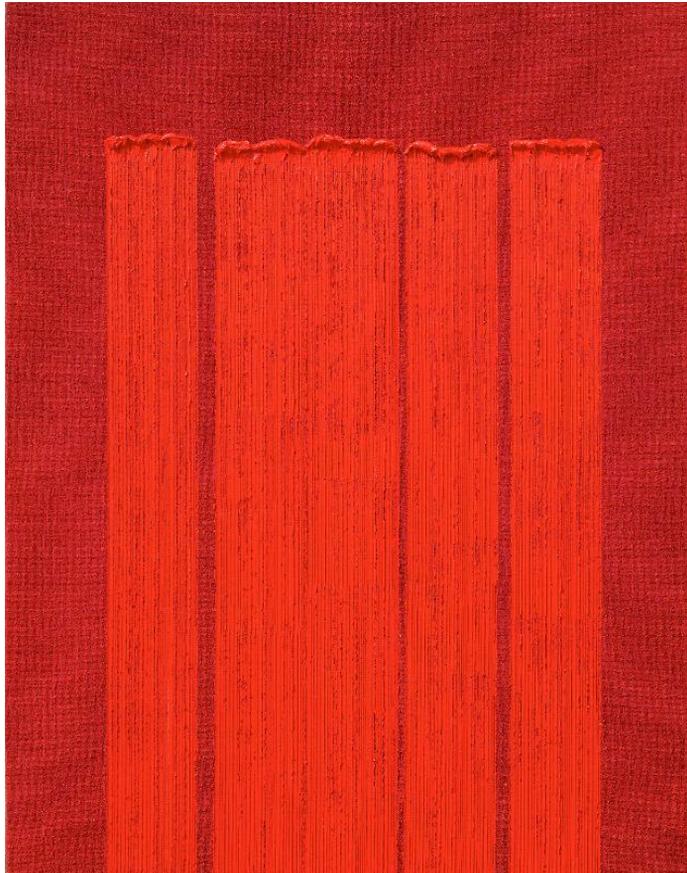
앞면으로 배어 나온 걸쭉한 물감 알갱이들은 나이프나 붓, 나무 주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작가의 개입으로 다시 자유롭게 변주되고, 마침내 물질과 행위의 흔적이 결합된 결과물로 완성된다.

국제갤러리는 "특히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의 파격적 방법론에는 작가가 추구해 온 기성 형식에 대한 저항적 태도가 담겨 있다. 그는 단색화 태동기부터 화면의 앞뒤를 구분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Ha Chong-Hyun'전에서는 작가가 새롭게 탐구한 색채의 대형 크기 '접합' 연작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마포 고유의 색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검게 칠한 작품 'Conjunction 18-41'(2018)은 단순히 어둡거나 인공적인 검은 톤의 색채가 아닌, 오랫동안 비를 맞은 기와가 세월에 퇴색된 듯한 자연적인 성향의 색채라 할 수 있다.

하중현은 최근 적색과 청색,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다홍색을 '접합'에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작품 'Conjunction 18-12'(2018)에서 보이는 선명한 다홍색은 단청과 한국전통악기의 화려한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다홍색의 '접합' 연작은 올해 초 '프리즈 LA' 아트페어 국제갤러리 부스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3월 도쿄 블럼앤포 갤러리 개인전에서 작은 크기의 작품으로 소개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하중현(b.1935) 'Conjunction 18-12' 2018 Oil on hemp cloth 227 x 182 cm 사진=국제갤러리 제공]

이번에 소개되는 'Conjunction 18-52'(2018) 역시 마포에 검은색 물감을 칠한 다음, 뒷면에서 흰색 물감을 밀어내어 앞면의 표면에 그을음을 입힌 작품이다.

국제갤러리는 "작가는 검게 그을린 표면을 다시 살짝 긁어내 음각의 형태로 흰색 물감을 노출시키고, 그 위에 얇은 철사를 사용해 서체와 같은 일종의 표식을 만들어냈다. 이는 1970년대 초 작가가 주력한 철조망과 용수철, 그리고 못을 사용했던 실험적인 시도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하중현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9월 밀라노 카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2월에는 런던 알민레쉬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오는 6월21일부터는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현대미술관에서의 그룹전 '주인의 색채: 예술, 경제 및 물성에 대해'에서 루치오 폰타나, 야니스 쿠넬리스, 한국의 박서보, 권영우, 윤형근과 함께 참가해 1972년 철조망 작품과 1979년 초기 접합 작품을 전시한다.

곧이어 7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의 송 현대미술관 그룹전 '추상'에서 한국작가 김창열과 함께 참가해 적색과 청색, 흰색의 대형 접합 연작을 선보일 예정이다.